

학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도 조사연구

원 은 실

원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오 종 철

군산대학교

본 연구는 학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 3군데 J시, G시, I시와 농촌지역 4군데 J군, M군, O군, I군에 소재한 공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의 학부모 289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양육태도가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인지를 분류하고 애정적-거부적, 자율적-통제적의 두 대립 성향에 따라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영재아를 위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거부적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에게 충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고, 자녀에게 자유로운 표현과 스스로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에 대해 허용감을 주고 완전히 수용해 주는 양육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아동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 분야의 영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 소양과 자질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소 성격의 전문 영재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적 차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해 무상교육 실시, 국립 영재교육기관 설립 확대, 영재교육 연구를 위한 연구소 설치 및 영재교육 전문가 육성, 각 영재교육관에 연구비 지원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주제어: 부모양육형태, 영재교육, 부모교육

I. 서 론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각종정보와 학문분야의 제반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갈수록 과열되는 국가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폭

교신저자: 원은실(eswon64@hanmail.net)

증되고 있는 지식을 수용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함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기존의 지식을 고수하면서 자신의 분야에 업무만을 처리해 오던 기존의 사회적 형태만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어려우며,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에 기초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는 단편적인 지식전달보다는 기본개념을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창의성을 기르는 데 유의한다는 교육부(1997)의 과학과 교육과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전경원(2003)도 영재교육의 발전 정도는 국가발전의 정도와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고, 조석희(1995)도 2등급 인물 100명이 1등급 인물 1명을 더 이상 대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국가가 봉착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전문적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영재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재의 중요성은 한 국가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전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재인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재는 누구인가? 영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적 요인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후천적 요인인가? 라는 문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하지만 두 요인이 모두 영향이 있다면 우리는 그 환경적 요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선천적 요인은 조작할 수 없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어떤 환경에 접하느냐에 따라 영재아와 일반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양소희, 2006)

Bloom(1985)은 ‘젊은이의 지능개발’이라는 120명의 영재연구에서 천재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조기교육의 필요성, 부모가 그 일을 좋아하고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한다는 점, 삶의 불가결한 영재성의 영역이 다양할 뿐더러 영재성을 키울 수 있는 변인도 매우 다양하지만 어떤 영역보다도 가장 가까워서 자녀의 성장모습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부모와 초기교사(유치원, 초등학교)역할은 거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터프 대학의 Feldman 교수는 영재아를 둔 부모는 다른 신체장애자나 정신박약아의 부모 이상으로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자신의 직업

을 포기하면서까지 헌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전경원, 2000).

이러한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타고난 재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장기간에 걸쳐 부모로부터 영재교육적 '환경을 제공받아야 발휘할 수 있다는 것과 이런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몫을 차지하는 부모는 자신의 가치체계에 의해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모역할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며, 부모의 가치관에 반영되어 양육행동을 중재한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발달 전반에 가지는 목표나 가치관 등의 다양한 인지적 내용을 포함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발달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이다(McGillicuddy-De Lisi, 1985).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에 의하면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그 대행자가 유아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부여하는 어떤 일정한 정서적 강도를 가지고 반응하는 내적 행동성까지 포함한다'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부모 양육태도에 따라 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됨에 따라, 부모의 양육 태도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영재아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다 부모교육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점에서 양육태도에 따른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고 영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올바른 인식과 유아들의 참다운 영재교육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전체적인 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어 주고, 부모로서의 건전한 가치관과 인격형성을 도모하며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학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양육태도에 대한 유형분류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 널리 알려진 Schaete(1959)의 양육태도 유형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Schaete(1959)의 양육태도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정적인 양육태도로 이 유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수용적, 헌신적이며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언제라도 부모가 자녀의 고민을 들어준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거부적 양육태도로 이 유형의 부모는 자녀를 무시하고 거부하며 무관심하고 소홀히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난과 체벌을 자주 사용하고 자녀의 단점을 강조한다고 여긴다고 말한다.

셋째, 자율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의견이나 관리를 존중하며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를 하지 않는 민주적인 태도와 가능한 자녀 스스로 생각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책임을 지게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다.

넷째, 통제적 양육태도는 부모의 권위만을 강조하고 통제적이며 엄격하고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자녀에 대해 간섭이 심하고 설명이나 설득보다 즉각적이고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 태도를 말한다.

한편, 이지선(2006)은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에 따른 유아의 동작성 가축화 특성을 연구하면서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로 부모의 양육태도 분류를 본 연구와 동일하게 애정적, 거부적, 통제적, 자율적으로 나누었다. 또한 각 유형에 따른 차이를 구하여 제시했는데, 어머니의 경우는 애정적 태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엔,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 거부적 태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경우는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 거부적 태도 순으로 나타났다고 진술하였다. 최순자(2005)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도덕성 관계를 연구하면서 일본과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를 분석하였는데, 한국과 일본의 아버지의 양육태도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아버지가 일본 아버지보다 평균 점수 .10 차이로 덜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자율적 태도의 차이는 일본 아버지가 한국 아버지보다 평균 점수.12 차이로 더 자

울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어머니의 양육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거부적 양육태도에서 한국 어머니가 일본 어머니보다 평균점수 .30의 차이로 덜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자율적 태도에서는 일본 어머니가 한국 어머니보다 평균점수 .20 차이로 더 자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는 한국 부모는 애정적 양육태도를 취하면서도 자율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하지 못하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며, 일본 부모는 애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자율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에 제시한 연구 결과 이외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유형별로 조사한 연구는 주로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을 진술한 경우가 많고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다 많은 선행연구를 제시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유추해보면 주로 애정적이며 통제적인 성향이 많고 자율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모가 직접 자신의 양육태도를 직접 지각하는 것보다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좀 더 객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아동의 연령이 어려서 학부모를 통한 설문지 배부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J시, G시, I시와 J군, M군, O군, I군에 있는 172개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아 자녀를 둔 학부모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양육태도에 대해 먼저 설문을 한 다음 영재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의견을 묻는 설문을 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먼저 해당유치원의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한 후, 우편으로 총 320부를 2008년 4월과 5월에 배부하였으며 회수율은 90.3%로 289부가 회수되어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설문지 회수율은 농촌지역의 경우, 편부모나 조부모, 다문화가정이 대다수여서 설문에 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며, 도시지역의 경우 맞벌이 부모들이 대부분인 것이 원인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유치원들이 서면으로 통신문을 배부하던 종래방법에서 홈페이지나 핸드폰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전하는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설문지가 제대로 배부되지 않거나 방치된 경향이 있어 몇 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학부모의 일반적 배경

변 인		N	%
직업	전문 관리직	11	3.8
	공무원	61	21.1
	사무직	28	9.7
	판매 및 서비스직	9	3.1
	주부	157	54.3
	기타	23	8.0
생활거주지역	중소도시	189	65.4
	농촌	100	34.6
가정의 생활수준	중의 상	46	15.9
	중의 중	192	66.4
	중의 하	34	11.8
	하	17	5.9
합계		289	100

2. 연구도구

가. 양육 태도

양육태도와 영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였는데, 부모 양육태도검사 도구인 schaefer(1959)의 M.B.R.I를 이원영(1983)이 번안한 것을 본 연구의 성격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원래 총 28문항 154개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가지 요인(애정, 거부, 외향성, 의존성 조장, 통제적, 긍정적 평가태도, 부모의 의존성)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성격에 맞추어 32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태도만으로 제한하여 측정하였다. 애정, 거부, 자율, 통제적 양육태도 각각 7~9문항씩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응답하는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

유 형	문 항 내 용	문항수	신뢰도
애정적 태도	자녀를 애정적으로 대하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고, 자녀 중심적이며, 자주 설명해 주는 태도	7문항	.7355
거부적 태도	자녀를 무시하고 창피를 주거나 무관심하고 비난하며, 자녀를 귀찮게 여기는 태도	7문항	.6205
자율적 태도	부모가 거의 규칙을 제시하지 않으며, 자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게 하는 태도	9문항	.5996
통제적 태도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일정한 범위내에 제한하고 자녀의 계획 및 인간관계를 심하게 간섭하는 태도	9문항	.7138

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도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한국교육개발원(2002), 신영자(2003), 민경해(2006), 양소희(2006), 지현정(2007) 등의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으로, 예비검사를 통한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로 각 유형별로 .5996~.7355의 값을 나타냈으며, 학부모들의 유아 영재교육에 대한 질문지를 22문항으로 작성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영역과 내용은 <표 3>과 같다.

< 표 3 > 영재교육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 영역과 내용

영역	문항내용	문항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의 인식 · 필요성과 그 이유 · 영재교육의 기회제공 · 영재교육의 중점내용 	8
영재아 선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방법 · 시작시기 · 자녀의 영재가능성 · 영재교육의 대상선발 	4
영재아의 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갖추어야 할 요소 · 노력할 점 	2
영재교육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 담당자 직위 	2
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 선호 분야 · 가장 바람직한 프로그램 적용 	2
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 개선방안 · 활성화방안 · 앞으로의 전망 	4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for Windows R.10.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빈도, 백분율)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4가지 양육태도(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태도)를 애정적-거부적 태도와 자율적-통제적 태도로 2개로 다시 분류하여 양육태도에 따라 영재교육에 대한 필요성, 영재아 선발, 영재아의 자질, 영재교육 담당자, 영재교육 프로그램, 영재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양육태도(애정-거부적, 자율-통제적)에 따른 영재교육 인식도에 대한 설문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분석결과를 나타내는 표의 전체 연구 대상 수치는 해당 문항에 대한 분석시 결측치를 제거한 것이므로 분석결과가 표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1. 영재교육의 인식

학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학부모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도 (빈도: %)

	집 단	많이	조금	아주조금	전혀모름	합계	χ^2
영재교육 의 인식도	애정적	22(9.8)	125(55.6)	66(29.3)	12(5.3)	225(77.9)	11.7**
	거부적		38(59.4)	17(26.6)	9(14.1)	64(22.1)	
	자율적	14(7.0)	117(58.8)	62(31.2)	6(3.0)	199(68.9)	18.1***
	통제적	8(8.9)	46(51.1)	21(23.3)	15(16.7)	90(31.1)	
전 체	22(7.6)	163(56.4)	83(28.7)	21(7.3)	289(100)		

* $p < .05$, ** $p < .01$, *** $p < .001$

영재교육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애정적 양육 태도 집단과 거부적 양육태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이에 대한 <표 4>를 보면 애정적 양육태도 집단은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도에서 ‘많이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응답자가 65.4%이며, ‘전혀모름’의 응답이 5.3%에 불과하지만, 거부적 양육태도 집단에서는 ‘조금 알고 있다’ 응답자가 59.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애정적 양육태도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재교육의 인식도에 대하여 애정적 양육 태도 집단과 거부적 양육

태도 집단 간에도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영재교육에 대하여 애정적 양육태도의 집단이나 자율적 양육태도의 집단이 다른 두 집단의 부모보다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영재교육의 필요성

<표 5> 영재교육 필요성 인식 (빈도: %)

	집 단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치않다	합계	χ^2
영재 교육 필요성 인식	애정적	8(3.7)	103(47.0)	98(44.7)	8(3.7)	2(0.9)	219(77.4)	9.8*
	거부적		31(48.6)	31(48.6)		2(2.9)	64(22.6)	
	자율적	6(3.1)	86(44.1)	95(48.7)	6(3.1)	2(1.0)	195(68.9)	3.7
	통제적	2(2.3)	48(54.5)	34(38.6)	2(2.3)	2(2.3)	88(31.1)	
전 체	8(2.8)	134(47.3)	129(45.6)	8(2.8)	4(1.4)	283(100)		

* $p<.05$, ** $p<.01$, *** $p<.001$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한 <표 5>에 의하면 애정적 양육태도 집단과 거부적 양육태도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반면에 자율적 양육태도 집단과 통제적 양육태도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다’에 대해서 애정적 집단은 47.0%, 거부적 집단 48.6%, 통제적 집단 54.5%로 응답하여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거부적 집단의 경우는 ‘그저 그렇다’도 48.6%로 부정적인 인식도 같은 비율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자율적 집단은 ‘그저 그렇다’ 48.7%, ‘필요하다’에 44.1%로 응답을 보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3. 영재교육이 필요한 이유

<표 6> 영재교육이 필요한 이유 (빈도: %)

집 단	개인능력의 조기개발	교육의 효율성 추구	국가의 인적자원 조기발굴	합계	X ²	
영재 교육 필요한 이유	애정적	61(59.8)	41(40.2)	102(77.8)	23.5**	
	거부적	17(58.6)	6(20.7)	29(22.2)		
	자율적	48(56.5)	35(41.2)	2(2.4)	85(64.9)	4.9
	통제적	30(65.2)	12(26.1)	4(8.7)	46(35.1)	
	전체	78(59.5)	47(35.9)	6(4.6)	131(100)	

* $p < .05$, ** $p < .01$, *** $p < .001$

영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애정적 양육태도를 가진 집단과 거부적 양육태도를 가진 집단 간에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반면 자율적 양육태도 집단과 통제적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나타낸 <표 6>에 의하면 애정적 양육태도를 가진 학부모들이 개인능력의 조기개발에서 가장 많은 의견(59.8%)을 보였고 거부적 양육태도(58.6%), 자율적 양육태도(56.5%) 가진 학부모들 역시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교육의 효율성 추구에 대해 많은 응답이 나왔으며, 국가의 인적자원 조기발굴은 애정적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적 추세에의 부응’에 대해서는 전혀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태도와는 상관없이 영재교육은 개인능력의 조기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영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영재교육 참여 여부

만약 자녀에게 영재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시킬 것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애정적 양육태도집단과 거부적 양육태도 집단 간에 대단히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7>에 의하면 ‘그렇다’

<표 7> 영재교육 참여여부 (빈도: %)

	집 단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합계	χ^2
영재 교육 참여 여부	애정적	34(15.2)	122(54.5)	45(20.1)	17(7.6)	6(2.7)	224(84.7)	220.5**
	거부적	4(6.3)	21(32.8)	23(35.9)	14(21.9)	2(3.1)	64(22.2)	
	자율적	30(15.2)	96(48.5)	45(22.7)	21(10.6)	6(3.0)	198(68.8)	2.4
	통제적	8(8.9)	47(52.2)	23(25.6)	10(11.1)	2(2.2)	90(31.2)	
	전체	38(13.2)	143(49.7)	68(23.6)	31(10.8)	8(2.8)	288(100)	

* $p<.05$, ** $p<.01$, *** $p<.001$

는 의견에 애정적 집단은 54.5%, 자율적 집단은 48.5% 통제적 집단은 52.5%로 거부적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 모두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거부적 집단의 경우 ‘그저 그렇다’는 의견에 35.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다, 따라서 거부적 양육태도를 가진 학부모들 제외한 나머지 다른 집단의 부모들은 모두 자녀를 영재교육에 참여시키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영재교육의 중점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영재교육의 중점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영재교육의 교육중점 (빈도: %)

	집 단	극소수의 수재나 인재육성	특별한 인재육성	조기교육 의 일환	상급학교 진학대비	기타	합계	χ^2
영재 교육 교육 중점	애정적	23(10.3)	169(75.8)	23(10.3)	2(0.9)	6(2.7)	223(77.7)	7.6
	거부적	11(17.2)	41(64.1)	10(15.6)	2(3.1)		64(22.3)	
	자율적	23(11.7)	144(73.1)	24(12.2)	2(1.0)	4(2.0)	197(68.6)	0.9
	통제적	11(12.2)	66(73.3)	9(10.0)	2(2.2)	2(2.2)	90(31.4)	
	전체	34(11.8)	210(73.2)	33(11.5)	4(1.4)	6(2.1)	287(100)	

* $p<.05$, ** $p<.01$, *** $p<.001$

<표 8>에 의하면 4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애정적 태도 집단 75.8%, 거부적 양육태도 집단 64.1%, 자율적 양육태도 집단 73.1%, 통제적 양육태도 73.3%로 모든 집단이 특별한 인재육성이 교육중점 내용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양육태도와 상관없이 영재교육의 중점내용은 특별한 인재육성임을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일반 유아교육과의 차이

<표 9> 일반 유아교육과의 차이 (빈도: %)

집 단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χ^2	
일반 유아교육과의 차이	애정적	24(10.8)	124(55.6)	25(11.2)	48(21.5)	2(0.9)	223(78.0)	10.4*
	거부적	8(12.7)	44(69.8)	5(7.9)	4(6.3)	2(3.2)	63(22.0)	
일반 유아교육과의 차이	자율적	20(10.1)	112(56.3)	23(11.6)	44(22.1)		199(69.6)	16.8**
	통제적	12(13.8)	56(64.4)	7(8.0)	8(9.2)	4(4.6)	87(30.4)	
전체	32(11.2)	168(58.7)	30(10.5)	52(18.2)	4(1.4)	286(100)		

* $p < .05$, ** $p < .01$, *** $p < .001$

영재교육은 일반교육과 다르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애정적 양육태도집단과 거부적 양육태도 집단 유의수준 5%에서, 자율적 양육태도 집단과 통제적 양육태도 간에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9>를 살펴보면 애정적 집단의 경우 ‘그렇다’ 37.9%로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거부적 집단의 경우는 ‘그저 그렇다’에 51.6%나 응답하였고, 자율적 집단과 통제적 집단은 ‘그렇다’는 의견에 각각 33.7%, 40.9%로 거부적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은 영재교육은 일반교육과는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자녀의 영재아 가능성

<표 10> 자녀의 영재가능성 (빈도: %)

	집 단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χ^2
자녀의 영재아 가능성	애정적	13(6.1)	81(37.9)	50(23.4)	64(29.9)	6(2.8)	214(77.0)	20.7**
	거부적	3(4.7)	19(29.7)	33(51.6)	9(14.1)		64(23.0)	
	자율적	15(7.9)	64(33.7)	56(29.5)	51(26.8)	4(2.1)	190(68.3)	5.8
	통제적	1(1.1)	36(40.9)	27(30.7)	22(25.0)	2(2.3)	88(31.7)	
전체	16(5.8)	100(36.0)	83(29.9)	73(26.3)	6(2.2)	278(100)		

* $p < .05$, ** $p < .01$, *** $p < .001$

만약 자녀가 적절한 영재교육을 받으면 영재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애정적 양육태도집단과 거부적 양육태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반면 자율적 집단과 통제적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에 의하면 자녀의 영재아 가능성교육에 대한 인식도에서 ‘그렇다’는 의견에 애정적 집단 37.9%, 거부적 집단 29.7%, 자율적 집단 33.7%, 통제적 집단 40.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으나, 거부적 양육태도 집단에서는 ‘그저 그렇다’ 51.6%에 많은 응답을 보여 거부적 양육태도를 가진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 자녀가 영재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8. 영재아 선발의 필요성

영재들을 따로 선발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설문조사에서 애정적 양육태도 집단과 거부적 양육태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반면에 자율적 집단과 통제적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였다. <표 11>을 살펴보면 ‘그렇다’ 의견에 애정적 양육태도 집단 37.3%, 자율적 양육태도 집단 37.7%, 통제적 양육태도 집단 45.6%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특히 거부적 양육태도 집단은 50.0% 이상의 응답이 나와 다른 집단에 비해 적극적으로 영재선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영재아 선발의 필요성 (빈도: %)

	집 단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χ^2
영재아 선발의 필요성	애정적	13(5.8)	84(37.3)	57(25.3)	65(28.9)	6(2.7)	225(77.9)	19.1**
	거부적	2(3.1)	32(50.0)	15(23.4)	7(10.9)	8(12.5)	64(22.1)	
	자율적	15(5.2)	75(37.7)	51(25.6)	48(24.1)	10(5.0)	199(68.9)	8.1
	통제적		41(45.6)	21(23.3)	24(26.7)	4(4.4)	90(31.1)	
	전체	15(5.2)	116(40.1)	72(24.9)	72(24.9)	14(4.8)	289(100)	

* $p<.05$, ** $p<.01$, *** $p<.001$

9. 영재교육 시작시기

<표 12> 영재교육 시작시기 (빈도: %)

	집 단	영아기 (출생~만2세)	취학전 (만3~5세)	저학년 (1~3년)	고학년 (4~6년)	중학생 이후	합계	χ^2
영재 교육의 시작 시기	애정적	3(1.4)	84(38.4)	84(38.4)	42(19.2)	6(2.7)	219(77.4)	7.2
	거부적		26(40.6)	17(26.6)	16(25.0)	5(7.8)	64(22.6)	
	자율적	3(1.5)	79(40.5)	73(37.4)	36(18.5)	4(2.1)	195(68.9)	9.46*
	통제적		31(35.2)	28(31.8)	22(25.0)	7(8.0)	88(31.1)	
	전체	3(1.1)	110(38.9)	101(35.7)	58(20.5)	11(3.9)	283(100)	

* $p<.05$, ** $p<.01$, *** $p<.001$

영재교육을 위한 적절한 시작 시기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애정적 양육태도 집단과 거부적 양육태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자율적 양육태도 집단과 통제적 양육 태도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그러나 <표 12>를 살펴보면 네 집단 모두 취학 전 만3~5세에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의 38.9%로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35.7%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영재아 선발방식

<표 13> 영재아 선발방식 (빈도: %)

	집 단	지능검사	교사추천	전문가추천	능력검사	기타	합계	χ^2
영재 교육의 시작 시기	애정적	8(3.6)	12(5.4)	131(59.3)	64(29.0)	6(2.7)	221(77.5)	4.3
	거부적	2(3.1)	6(9.4)	33(51.6)	23(35.9)		64(22.5)	
	자율적	10(5.1)	12(6.2)	109(55.9)	62(31.8)	2(1.0)	195(68.4)	11.3
	통제적		6(6.7)	55(61.1)	25(27.8)	4(4.4)	90(31.6)	
	전체	10(3.5)	18(6.3)	164(57.5)	87(30.5)	6(2.1)	285(100)	

* $p < .05$, ** $p < .01$, *** $p < .001$

영재교육을 위해 대상의 선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지를 묻는 설문에 대한 분석은 <표 13>과 같으며, 애정적 집단과 거부적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율적 집단과 통제적 집단 간에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집단 모두 교사 이외의 전문가가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57.5%)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아동의 특정 분야에 대한 능력검사를 통해서(30.5%), 교사에 추천에 의해(6.3%), 지능검사(3.5%), 기타 의견(2.1%)순으로 나왔으며, 부모가 추천한다에는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 영재 교육 담당기관

<표 14> 영재 교육 담당기관 (빈도: %)

	집 단	유아 교육기관	특수학교	대학 및 연구소부설기관	가정방문 프로그램	기타	합계	χ^2
영재 교육 담당 기관	예정적	70(32.3)	62(28.8)	71(32.7)	12(5.5)	2(0.9)	217(77.2)	6.6
	거부적	23(35.9)	21(32.8)	12(18.8)	6(9.4)	2(3.1)	64(22.8)	
	자율적	68(35.2)	50(25.9)	57(29.5)	16(8.3)	2(1.0)	193(68.7)	7.7
	통제적	25(28.4)	33(37.5)	26(29.5)	2(2.3)	2(2.3)	88(31.3)	
	전체	93(33.1)	83(29.5)	83(29.5)	18(6.4)	4(1.4)	281(100)	

* $p<.05$, ** $p<.01$, *** $p<.001$

영재교육을 어디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분석은 <표 14>와 같으며, 네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네 집단 모두 유아교육기관(33.1%)이 가장 좋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특수학교와 대학교 및 연구소 부설기관(29.5%)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정방문 프로그램(6.4), 기타(1.4%) 순으로 나타났다.

12. 영재 교육분야

<표 15> 영재 교육 분야 (빈도: %)

	집 단	국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컴퓨터	외국어	합계	χ^2
영재 교육 분야	예정적	16(9.0)	13(7.3)	102(57.3)	17(9.6)	9(5.1)	4(2.2)	17(9.6)	178(74.8)	16.8*
	거부적		10(16.7)	27(45.0)	11(18.3)	6(10.0)		6(10.0)	60(25.2)	
	자율적	14(8.6)	10(6.2)	99(61.1)	14(8.6)	9(5.6)		16(9.9)	162(68.1)	26.9***
	통제적	2(2.6)	13(17.1)	30(39.5)	14(18.4)	6(7.9)	4(5.3)	7(9.2)	76(31.9)	
	전체	16(6.7)	23(9.7)	129(54.2)	28(11.8)	15(6.3)	4(1.7)	23(9.7)	238(100)	

* $p<.05$, ** $p<.01$, *** $p<.001$

영재교육을 분야별로 나누어 실시한다면 어떤 분야의 영재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분석은 <표 15>와 같으며 애정적 집단과 거부적 집단은 유의수준 5%에서 자율적 집단과 통제적 집단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네 집단 모두 과학을 54.2%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음악 11.8%, 수학과 외국어 9.7%, 국어 6.7%, 미술 6.3%, 컴퓨터 1.7% 순으로 나타났다.

13. 가장 바람직한 영재교육

<표 16> 바람직한 영재교육 (빈도: %)

집 단	전인적 통합교육	흥미와 욕구	특기지도	유아의 선택	합계	χ^2	
바람 직한 영재 교육	애정적	113(51.1)	77(34.8)	13(5.9)	18(8.1)	221(77.5)	17.8***
	거부적	17(26.6)	37(57.8)	8(12.5)	2(3.1)	64(22.5)	
	자율적	93(47.2)	76(38.6)	12(6.1)	16(8.1)	197(69.1)	3.2
	통제적	37(42.0)	38(43.2)	9(10.2)	4(4.5)	88(30.9)	
전체	130(45.6)	114(40.0)	21(7.4)	20(7.0)	285(100)		

* $p < .05$, ** $p < .01$, *** $p < .001$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어느 것이라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애정적 집단과 거부적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5$). 반면 자율적 집단과 통제적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6>을 살펴보면 애정적 양육형태 집단의 경우 자연스런 발달을 돕는 전인적 통합(인지, 정서, 언어, 신체, 사회성)교육이 좋다는 응답이 51.1%로 가장 많았고, 거부적 집단은 57.8%, 자율적 집단은 38.6%, 통제적 집단은 43.2%로 아동의 개별적인 흥미와 욕구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인적 통합교육이 45.6%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은 흥미와 욕구 40.0%, 특기지도 7.4%, 유아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0% 순으로 나타났다.

14. 영재교육의 문제점

<표 17> 영재교육의 문제점 (빈도: %)

집 단	국가적 지원의 부족	영재선발 문제	전문 교사부족	교재나 자료의 부족	프로그램 부족	합계	χ^2	
영재 교육 문제	애정적	68(32.9)	38(18.4)	40(19.3)	12(5.8)	49(23.7)	207(77.2)	17.9*
	거부적	16(26.2)	25(41.0)	13(21.3)		7(11.5)	61(22.8)	
	자율적	55(29.4)	39(20.9)	40(21.4)	10(5.3)	43(23.0)	187(69.8)	5.8
	통제적	29(35.8)	24(29.6)	13(16.0)	2(2.5)	13(16.0)	81(30.2)	
전체	84(31.3)	63(23.5)	53(19.8)	12(4.5)	56(20.9)	268(100)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운영되는 영재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 조사에서는 애정적 양육태도 집단과 거부적 양육태도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1$). 반면 자율적 양육 태도 집단과 통제적 양육태도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을 살펴보면 영재교육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법적으로 제정하고 지원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애정적 양육형태 집단의 경우 32.9%, 자율적 29.4%, 통제적 35.8%로 가장 많은 반면 거부적 집단의 경우는 영재선발의 문제에 41.0%로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적 집단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영재아 선발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적 기준과 자원의 부족이 31.3%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은 영재선발의 문제 23.5%, 프로그램의 부족 20.9%, 전문교사부족 19.8%, 교재나 자료의 부족 4.5% 순으로 나타났다.

15. 현 영재교육의 개선방안

영재교육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 분석은 <표 18>과 같으며 애정적 집단과 거부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

<표 18> 영재교육의 개선 방안 (빈도: %)

	집 단	전문 지도교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국가의 행, 재정적 지원	중요성 인식	특수 학교 설립	기타	합계	χ^2
개선 방안	애정적	44(20.5)	86(40.0)	38(17.7)	20(9.3)	16(7.4)	11(5.1)	215(77.1)	12.7*
	거부적	19(29.7)	30(46.9)	7(10.9)	2(3.1)	6(9.4)		64(22.9)	
	자율적	46(23.8)	82(42.5)	27(14.0)	17(8.8)	12(6.2)	9(4.7)	193(69.2)	6.1
	통제적	17(19.8)	34(39.5)	18(20.9)	5(5.8)	10(11.6)	2(2.3)	86(30.8)	
	전체	63(22.6)	116(41.6)	45(16.1)	22(7.9)	22(7.9)	11(3.9)	279(100)	

* $p < .05$, ** $p < .01$, *** $p < .001$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5$). 반면 자율적 집단과 통제적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네 집단 모두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으며(41.6%) 그 다음은 전문지도 교사양성(22.6%),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16.1%), 영재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특수학교의 설립(7.3%), 기타(3.9%)순으로 나타났다.

16. 영재교육의 활성화 방안

<표 19> 영재교육의 활성화 방안 (빈도: %)

	집 단	국가의 행, 재정적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습 자료의 개발	상급학교 와의 연계성	교육 기회의 확대	기타	합계	χ^2
개선 장안	애정적	54(25.1)	74(34.4)	20(9.3)	20(9.3)	43(20.0)	4(1.9)	215(77.1)	6.6
	거부적	19(29.7)	29(45.3)	4(6.3)	2(3.1)	10(15.6)		64(22.9)	
	자율적	46(23.8)	74(38.3)	19(9.8)	20(10.4)	32(16.6)	2(1.0)	193(69.2)	11.3*
	통제적	27(31.4)	29(33.7)	5(5.8)	2(2.3)	21(24.4)	2(2.3)	86(30.8)	
	전체	73(26.2)	103(36.9)	24(8.6)	22(7.9)	53(19.0)	4(1.4)	279(100)	

* $p < .05$, ** $p < .01$, *** $p < .001$

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묻는 설문분석은 <표 19>와 같으며 애정적 집단과 거부적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율적, 통제적 집단 간에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네 집단 모두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으며(36.9%), 그 다음은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26.2%), 영재교육기회의 확대(19.0%), 영재교육을 위한 학습자료의 개발(8.6%), 상급학교와의 연계교육(7.9%), 기타(1.4%) 순으로 나타났다.

17. 영재교육에 대한 전망

<표 20> 영재교육에 대한 전망 (빈도: %)

	집 단	인재양성	잠재력개발	소수대상 관심결지못함	평등에 위배 되므로 축소	기타	합계	χ^2
개선 장안	애정적	28(12.9)	149(68.7)	26(12.0)	6(2.8)	8(3.7)	217(77.2)	10.1*
	거부적	9(4.1)	37(57.8)	16(25.0)	2(3.1)		64(22.8)	
	자율적	26(13.3)	129(66.2)	30(15.4)	4(2.1)	6(3.1)	195(69.4)	1.63
	통제적	11(12.8)	57(66.3)	12(14.0)	4(4.7)	2(2.3)	86(30.6)	
	전체	37(13.2)	186(66.2)	42(14.9)	8(2.8)	8(2.8)	281(100)	

* $p<.05$, ** $p<.01$, *** $p<.001$

영재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묻는 문항에 대한 설문분석은 <표 20>과 같으며 애정적 집단과 거부적 집단 간에는 유의확률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자율적 집단과 통제적 집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네 집단 모두 개인의 잠재력 개발 측면에서 배려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66.2%) 그 다음은 소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함(14.9%), 인재양성 측면에서 활성화(13.2%), 교육기회의 평등에 위배되므로 축소(2.8), 기타(2.8) 순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제언

대부분 영역에서 애정적, 거부적 양육형태의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자율적, 통제적 양육형태의 집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거부적 양육형태의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 영재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 및 제언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은 네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두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양육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부모들은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영재교육의 필요성은 애정-거부적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자율적-통제적 집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부적 양육형태의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필요한 이유를 양육태도와 관계없이 개인능력의 조기개발이라는 측면이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영재교육기관에 기대하는 교육적 기대에 대한 부모들의 바람을 짐작케 한다.

셋째, 자녀의 영재교육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율적-통제적 양육형태의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부적 양육태도 집단의 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두 집단의 부모들은 모두 자녀를 영재교육에 참여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섯째, 영재교육의 일반 유아교육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율적-통제적 양육형태의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거부적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은 영재교육은 일반 교육과는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재교육은 일반 유치원 교육과 다른 특별한 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교육을 받게 하려는 부모들의 열망이 반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교육여부에 따른 자녀의 영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율적-통제적 양육형태의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영재교육에의 참여여부와 마찬가지로 거부적 양육태도를 가진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 자녀가 영재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거부적 양육형태의 부모들은 자녀의 영재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반면, 애정, 자율, 통제적 양육형태의 부모들은 기회가 되면 자녀를 영재교육에 참여시켜 교육을 받게 하여 영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곱째, 영재선발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율적-통제적 양육형태의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부적 양육태도 집단이 50.0%이상의 응답이 나와 다른 집단에 비해 적극적으로 영재선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정, 통제, 자율적 양육형태의 부모들은 영재아를 따로 선발할 필요가 없이 모든 아동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거부적 양육태도를 가진 학부모들이 영재아 선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바람직한 선발기준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바람직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를 설문한 결과 애정적,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를 가진 학부모들이 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교육이라고 응답한 것에 반해 거부적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들은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고려한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것과 상통하는 것으로 거부적 성향의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해 자신감과 양육 효능감이 없어 자녀를 믿지 못하거나 불안감으로 인해 안전하고 객관적인 기준선에 자녀가 들어가 다른 사람에게는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은 스스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덟째, 영재교육의 시작시기에 대해서는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차이를 보였으며, 자율적-통제적 양육형태의 집

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제적 집단이 응답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사료되며 네 집단 모두 취학전 만3~5세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유치원 시기에 미리 영재성을 발견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영재아의 개인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특별한 인재로 육성해야함을 시사한다,

아홉째, 영재아의 선발방식은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차이를 보였으며, 자율적-통제적 양육형태의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제적 집단이 응답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사료되며 네 집단 모두 전문가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아동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 분야의 영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 소양과 자질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열 번째, 영재교육기관으로 가장 바람직한 곳은 어디인지 묻는 설문에서는 네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유아교육기관이 가장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아동들에게 허용적이고 자유로운 유치원과 같은 기관이면서 영재교육은 특수교육에 속하므로 특수학교의 성격과 전문적인 지식과 견문을 쌓을 수 있는 연구소 성격의 전문 영재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열한 번째, 가장 선호하는 과목은 애정적 집단과 거부적 집단과 자율적 집단과 통제적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적 집단과 통제적 집단 모두 응답률이 저조하기는 하나 네 집단 모두 과학을 선호하는 나타났다. 이는 영재교육 발전을 위한 앞으로 전망은 창의적 사고 육성과 개인의 잠재력 계발이라고 응답한 내용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영재교육에서 과학이 가장 활성화되어야 할 과목임을 알 수 있다.

열두 번째, 바람직한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율적-통제적 양육형태의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부적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 전인적 통합교육이라고 응답했다. 영재교육의 시작시기를 유치원 연령으로 본다면 교육대상의 연령에 적합한 교육이 전인적 통합교육임을

시사한다. 한편 거부적 집단에서는 개별적인 흥미와 욕구에 따른 교육이라고 하였는데, 자녀의 부적응 등을 염려하는 성향이 있으나 교육에 있어서 피교육자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하는 것 또한 중요함을 시사한다.

열세 번째, 영재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율적-통제적 양육형태의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부적 양육태도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는 문제점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법적으로 제정하고 지원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영재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해 무상교육 실시, 국립 영재교육기관 설립확대, 영재교육 연구를 연구소 설치 및 영재교육 전문가 육성, 각 영재교육관에 연구비 지원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 앞으로 영재교육이 영재아의 잠재력 개발 측면에서 배려되고 활성화되도록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1997). 초·중등학교교육과정
- 김미숙 (1985). 만5세 유아의 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과 창의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경혜 (2006). 영재자녀 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명자 (2003). 영재 유아교육의 실태와 유치원 교사의 인식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소희 (2006). 영재 교육기관과 일반 교육기관 아동 어머니의 교육관과 양육태도 및 영재 인식에 대한 연구, 강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선 (2006).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에 따른 유아의 동작성 가족화 특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원 (2003). 영재교육학, 학문사

- 전경원 (2000). 한국의 새천년 영재교육학, 학문사
- 조석희 (1995). 영재성과 영재교육의 개념, 서울, 영재교육
- 지현정 (2007). 유아영재교육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비교연구,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순자 (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도덕성 관계, 국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2001). 영재교육의 실천방안, 서울: 교육개발원
- Bloom. B. S. (1985).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New York Ballantino Books.
- McGillcuddy-De Lisi, A, V. (1985). The relation between child-rearing beliefs and the home environ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family. *Realations*, 38, 317-322
- Schaete.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Gross, M. U. M(1992). The use of radical acceleration in cases of extreme intellectual precocity. *Gifted Child Quarterly*, 36, 91-99

= Abstract =

An Investigative Study on the Recognition for the Talented Children Education, Classified with Parents' Upbringing Styles

Won Eun Sil

Wonchon Elementary Kindergarten

Oh Jong Chul

Kunsan National University, Science Education Institute for the Gifted

This thesis was projected for the purpose of looking into the recognition of the talented children education, classifying with parents' upbringing styles, and it classified parents' upbringing styles with affection, refusal, and autonomy, aiming at 289 parents whose children are enrolled in public kindergartens located at three urban districts, J City, G City, and I City, and four rural districts, J County, M County, O County, and I County, and investigated the recognition for the talented children education, basing on four kinds of inclin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it is important to activate parent education for the talented children, to help parents, who bring up children with refusal attitude, to give their children sufficient affection, to offer children the chances to express freely and explore, to give children possible permission, and to accept children completely. Second, the cultivated experts with specialized culture and disposition are necessary to grasp the peculiarity of talented children in respective fields. Third, the establishment of the expert talented children education institution specializing in research is necessary. Fourth, at the national level, no-fee education for the talented children has to be carried into effect, the national tal-

ented children education agencies have to be established widely, researches for the talented children have to be established, the experts for educating talented children have to be brought up, and research expenses have to be supplied to respective talented children education agencies.

Key Words: Parent's upbringing styles, Talented children education, Parent education

1차 원고접수: 2008년 7월 1일
수정원고접수: 2008년 8월 13일
최종게재결정: 2008년 8월 20일